

편입학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책

서 정 복

충남대 사학과 교수, 교무처장



1. 편입학 확대의 근본 배경과 목적

편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자나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편입학과 전문대 졸업자 또는 대학 1·2학년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편입학이 최근 들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추진으로 편입학 기회를 확대한 데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같은 해 12월 19일 각 대학에 '대학의 전과 및 편입학 확대 방안'을 통보함으로써 편입학의 열기가 가중되었다.

교육부가 편입학을 확대한 것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학사학위가 있는 자가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 근본 목표였다. 또한 일반편입학 여석 산출 기준을 합리화하여 대학에서 일반 휴학이나 입대휴학 등으로 생겨난 교육여력이나 교육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생들의 학교간 이동을 쉽게 하려는 배려로 풀이된다.

그리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의 3학년(의대·치대·한의대의 경우, 본과 1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를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에서 5%로, 학과(부)의 정원은 10% 이내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편입학의 문이 종래보다 크게 넓어져서 1995년 13,938명이었던 일반 편입생수가 지난 '96년에는 무려 36,148명으로 3배나 증가하였다. 편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도 크게 늘어 올해 1학기만 하여

도 전국 163개 대학 중 101개 대학에서 편입학을 실시하여 학사편입학이 9,606명, 일반편입학은 20,678명으로 모두 30,284명이나 되어 편입학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난 해 1학기의 27,000명에 비해 올해 1학기는 3천여 명이나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도 연세대가 761명을, 고려대가 275명을 모집하는 등 주로 수도권 대학에 많이 쏠리고 있어 지방대학들이 대학의 운영과 학생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편입학 확대에 따른 문제점

1) 당국의 정책상의 모순점

편입학의 확대 실시로 학교간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휴학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여력 및 교육공간이 활용되며, 전문대 졸업생 및 학사학위 취득자에게 계속된 교육기회 제공과 또 하나의 전공선택 기회를 더욱 넓혀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편입학생들의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선 정부가 '80년대 이래로 취해온 수도권인구 억제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학의 신설을 불허하고 정원 증원도 사실상 동결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신·증설을 비교적 자유롭게 풀어준 것은 사실 수도권인구 유입 억제책의 일환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편입학으로 인해 한 학기에도 몇 만 명씩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대학간의 학생 이동이 상호 형평적 교류

가 되어야 하는데,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로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대학이나 학과의 전공을 선택할 때 학생의 취미, 적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육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미 서열화된 대학의 규모와 더불어 서울 소재지 대학에 학적을 두려는 뿌리깊은 난치병을 교육부가 방관하는 듯하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편입학 확대의 배경과 목적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인구 분산책으로 보나 지방대학 육성책으로 보나 편입학의 확대는 모순된 정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지방대학 운영난 봉착

우리나라의 대학은 3분의 2 이상이 사립대학으로서, 정부의 지원이 아주 빈약하고 오직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 재단전입금이 다소 있는 대학도 있지만, 전국 사립대학은 평균적으로 학교재정의 78% 정도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사립대의 경우는 학생수가 대학재정에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학은 역사가 짧고, 규모가 영세하여 입학생수가 아주 적은 편이다. 게다가 지난 해부터 편입학을 확대하니 들어오는 학생은 거의 없고 빠져나가는 학생이 더욱 많아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열악한 재정 형편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턱없이 많은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학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지방대학의 위상이 편입학 실시로 인해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어 사립대의 경우는 대학운영에 대한 사기마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교육에 투자하는 사립대의 운영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편입학으로 빠져나간 학생수만큼의 보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아울러 지방대학을 육성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학을 동일한 기준에 놓고 자유경쟁에 의한 적자생존식의 정책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있는 정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 같다.

3) 학생지도와 교육상의 문제점

지방대학에는 자기 고장을 지키겠다는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진학을 시도하다 주저앉은 경우의 학생이 많다. 그리고 성적이 상위권에 들지 못하여 아예 포기하고 지방대학에 입학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의욕에 차서 모두가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잡혀져 있는 대학이 그리 많지가 않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등록만 하고 휴학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으면서 임시 공부를 다시 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른바 수도권의 명문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대학생들은 자신을 진단한 후, 입학하면서부터 1, 2년간 편입시험 준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대학의 분위기가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하나, 캠퍼스의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편입학 시험준비로 인하여 대학생활을 파행적으로 보내며, 애교심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어 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학생들은 대학의 행사에 참여도가 지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협조심도 적어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기가 일쑤이다. 그리하여 행사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참여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학이나 학과(부)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제자리에 처져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이 1, 2년 후 수도권의 대학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재학생들은 위축감에 사로잡히고 면학 분위기가 저해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편입학을 하는 학생을 위한 좋은 제도로만 생각했던 편입학의 확대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문제에 대한 보완책

교육 수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취미와 적성을 살릴 기회를 주며, 교육공간과 여력을 활용하게 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기존 구성원이 유출되어 대학의 운영과 학생지도에 문제성이 심각하다면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들로 하여금 편입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여야 한다. 우선 전국 대학을 평준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어려우면 대학을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학군화하여 제1·2·3... 대학으로 하면

편입학에 의한 지방 영세 대학의 공백화 현상은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학생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대학에 대하여는 정원의 일정 비율(10~20%)을 증원시킬 것을 허락하여 입학하게 하고, 증원된 인원만큼만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허락하게 한다면 학생감소에 의한 경영난은 해소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편입학으로 빠져나간 학생수만큼의 등록금에 걸맞은 재정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편입학 대신 3~4학년의 전공 과목에 한하여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의 학점상호인정제나 지방대학생의 수도권대학에의 등록 자율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넷째, 지방대학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확고하다면 일반편입학보다는 학사편입학만을 허락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학생이 수도권대학에 편입할 때에는 학사편입학만 가능하고, 수도권 대학생이 지방대학으로 편입할 때에는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서정복/충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릴3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남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 대학 교무처장과 한국서양사학회 학술정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프랑스 근대사 연구』, 『혁명·사상·사회변동』, 『유럽사의 구조와 전환』을 발표했다.